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언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알혼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16

미국 망중립성 결국 폐지, 한국엔 후폭풍 없을까

美FCC 폐지 결정…국내 ICT 촉각

미국 통신업자, 인터넷 서비스 차단 가능 국내 후폭풍 우려…정부 "변화 없을 것" 한국인터넷기업협 "부정적 영향 우려"



미국이 그동안 찬반 양론이 일 던 '망중립성 원칙'을 결국 폐지하 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 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

시간)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선 찬성 3, 반대 2의 결론이 났다. 미국은 그동안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 스로 분류,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 양이나 내용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 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론 버라이즌 같은 미 국의 통신기업이 특정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거나, 아예 차단까지 할 수 있

넷플릭스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 다. 앞으로 FCC 결정에 반대하는 소송까지 예 고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도 세계 ICT 산업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 큰 변화 없이 국내 망중립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사의 기간통신사업자 법 적 지위에 근거해 망중립성 정책에 변화가 없 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라 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미국 FCC 결정의 후폭풍이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우려하 망중립성을 폐지하자 미국에서는 구글이나 고 있다. 완전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과도한 트 래픽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 대가를 지 불하게 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들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미 국의 망중립성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문 을 냈다. 협회는 "특히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 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국 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 정이다"면서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망중 립성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이며, 국 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산업 육 성이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11일~15일

코스피지수	2482.07		+18.07
코스닥지수	771 <u>.</u> 82		+27.76
日 닛케이 지수	2만2553,22	•	-257.86
中 상하이 종합	3266.14	•	-23.86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8	•	-0.01
환율 (원 · 달러)	1090.00	•	- 5
국내금값 (원/그램g)	4만4061,22		+170.46

지수는 15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문재인 대통령, 충칭 현대차 공장 찾아가 격려

中시장 핵심 '베이징현대' 5공장 방문 현대차 中 판매 감소…해빙무드 기대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충칭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찾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충칭에 있는 '베이징 현대' 5공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충칭 현 대 공장 방문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직 접 안내를 맡았다. 정의선 부회장은 문 대통령 에게 중국 내 판매 회복을 위한 현대차의 노력 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충칭공장 입구에 있는 전시차들 을 둘러보던 중 올해 8월부터 중국에서 생산하 고 있는 엘란트라 전기차와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직원들의 기념 촬영에 응한 뒤, (현대차가)중국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어 열린 현대차와 중국에 동반진출한 협력 업체 간담회에서는 정의선 부회장과 함께 참석 해 사드 사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대외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충칭 공장 방문은 여 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충칭은 중국 시 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요충지이며, 현대차에게는 중국 시장 판매량 회복을 이뤄낼 핵심 생산 거점이다. 현대차 그룹은 사드 배치 여파로 최근 중국 시장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16일 중국 충칭시 '베이징현대' 5공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선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 러보던 중 현지 직원의 셀카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겪고 있는 상황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및 한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바뀌기 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에서 96만9553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그쳤 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6만9207대에 비

해 38.2% 감소한 실적이다.

현대차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 문으로 모처럼 찾아온 양국 간 해빙 분위기를 발판 삼아 판매 정상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쉐보레 전기차 볼트EV 美'워즈오토 10대 엔진'

쉐보레의 전기차 볼트EV(Bolt EV·사진)가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워즈 오토'의 올해 10대 엔진에 올랐다. 워즈오토는 볼트EV를 선정한 이유로 탁월한 1회 충전 주행거리와 가속성능 을 비롯한 다이나믹한 주행성능을 꼽았다.

워즈오토의 디렉터는 "볼트EV의 스마트한 디자인과 238마일(약 383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폭넓은 소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다"며 "36.7 kg.m의 토크가 선사하 는 가속성능으로 운전의 재미도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볼트EV의 전기 구동 유닛은 최고출력 204마력을 발휘해 정지상태에서 시속 60마일 (시속 약 97km)을 6.5초 이내에 주파하는 뛰어 난 동력성능을 발휘한다. 원성열 기자

e스포츠협회, 18일 LoL 트라이아웃 진행

한국e스포츠협회는 18일 '제3회 리그 오브 레 전드(LoL) 트라이아웃'을 개최한다. 프로 e스 포츠 선수를 꿈꾸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공개 적으로 실력을 검증 받고, 프로 경력을 가진 무소속 선수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는 자리 다. 참가자들은 서울 서초동 오클라우드 호텔 에서 오리엔테이션과 강동훈 롱주게이밍 감독 의 강연을 들은 뒤 PC방에서 실전테스트를 받 는다. 국내 LoL 챔피언스 코리아 팀 코치진이 참석해 선수들을 직접 테스트한다. 테스트 후 엔 추가 개별 면담도 진행한다. 트라이아웃에 는 70여 명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 심사 및 계정 확인 후 최종 4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한편 협회는 19일부터 2차 트라이아웃(28일 진행) 추가 모집을 시작한다. 2차 트라이아웃 에는 세미 프로 리그인 LoL 챌린저스 코치진 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 있는 해외팀 감독들이 참가해 선수들을 직접 테스트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 우르오스 새 모델



남성 뷰티 브랜드 우 르오스의 새 모델로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사진)가 발탁됐다. 우르오스 측은 "건강한 피부 와 남성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가 우 르오스 브랜드와 잘

부합된다고 판단해 새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노윤호는 우르오스의 대표 제품 '올인원 모이스처라이 저'의 2018년 새 TV 광고 '남자공학'편에 출연 정정욱 기자

오늘의 얼굴

김영주 협회장 "中과 상호협력 필요"



"한국의 새로운 발전 정책 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 路) 사업과 접목해 상호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 요하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사

진)은 16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한중 산업협력 충칭포럼'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충칭 은 유라시아 교통 허브로서 일대일로 사업의 요 충지다"며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 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접목해 공동발전의 가능성 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산업협력, 제3국 진출 기회 등을 모색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국에선 현대차, SK하이닉스, 현대건설, LS전 선 등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무역보 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비즈 TALK TALK

- "한미 간 단기 금리 차가 1% 상승하면 원·달 러 환율 변화율은 1.34%포인트 하락"(현대경제 연구원, 17일 발표한 '환율변동의 결정요인 분 석과 시사점' 보고서 중)
- "기술 보호 관련 소관 부서들 사이의 협업체 **를 강화해야 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새정부의 공정경쟁 정책 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주제로 강연
- "300인 미만 기업 45.7% 내년도에 긴축경영 돌입할 것"(한국경영자총협회, 273개사를 대상 으로 실시한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

데이터 경제

부모 절반 '생활비 스스로 해결' '집 상속 안해' 8년새 2배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 세대가 8년 사이 2배 증가했다. 자녀들의 부모 부양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모 세대의 절반이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었고, 10가구 중 3가구만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이 2008년 46.6%에서 지난해 52.6%로 6% 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38.0%에서 29.2%로 8.8%포인트 하락했다. 축적한 자산을 자녀에 물려주지 않고 노년을 위해 쓰겠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25.2% 로 8년 전(12. 7%)보다 두 배 많아졌다.

● **부모의 생활비 주 제공자** (가구주 응답. 단위:%)



● **보유주택 비상속 의향** (전국 만 60~84세 주택보유자, 단위:%)



편집ㅣ이수진 기자

경제현장.ipg

삼성 로봇 청소기 '파워봇 스타워즈 에디션' 포토존



삼성전자는 영화 '스타워즈:라스트 제다이' 개봉 첫 주말에 맞춰 16일 경기도 하남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에서 '파워봇·파워건 스타워즈 에디션' 체험 행사를 가졌다. 로봇청소기와 무선청소기의 흡입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험존, 영화 속 캐릭터와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했다. 또한 10대의 파워봇 스타워즈 에디션이 스타워즈 배경 음악에 맞춰 군무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